

(만화) 고개골의

고성이야기

글·그림 차 주 문



高城郡文化院

고성군기



군기설명

- 상단의 흰색은 군민의 순박성을 표시하고
- 하단의 청색은 동해의 청담한 물결을 상징하며
- 중앙 원대는 세계적인 명산인 금강산으로서 군민의 드높은 의지와 긍지를 상징함.

캐릭터(금강동이)



- 밝은연두 : 금강산과 청정자연을 지키는 금강동이의 의지 표현
- 청 색 : 동해의 깊고 푸른 청정의 바다와 금강의 하늘을 표현
- 노 랑 : 동해의 일출과 통일을 맞이하는 세날을 기원하는 고성 군민의 희망을 표현
- 복 장 : 전통 한복의 자연스러운 곡선처리로 우리 문화의 세계화와 한국의 미(美)를 강조하였음

고성의 상징



郡木 : 은행나무

- 외침에 굴할줄 모르는 군민의 기상
- 수세는 군민의 부궁한 번영을 상징



郡鳥 : 갯이갈매기

- 청정고성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사계절 내내 볼 수 있는 텃새
- 고기때를 알려 어민에게 도움을 주고 군민의 삶과 애환을 같이 하는 길조(吉鳥)로 애향, 행복, 평화의 상징



郡花 : 해당화

- 포기가 많은 것은 상부상조의 협동심
- 줄기의 가시는 불의의 침입을 방어하는 굳은 군민의 의지
- 백사장에서든 화려하게 피는 아름다운 꽃은 군민의 끈기와 슬기
- 다양한 종류는 군민의 무궁무진한 지혜
- 그윽한 향기와 탐스러운 열매는 군민의 고귀한 기품과 애향심



郡魚 : 명태(明太)

- 전국 제1의 생산량을 자랑
- 명태를 주제로 한 '명태축제'를 개최 향토문화축제로 자리매김

고성군 연혁

1884	강원도 고성군 및 간성군이었음
1895. 5. 26	칙령 제98호(1895. 26 공포) 23부제 실시로 강릉부에 소속
1896. 8. 4	칙령 제36호(1896. 8. 4 공포) 13도제 실시에 따라 강원도 고성군과 간성군으로 복귀
1914. 3. 1	부령 제111호(1913. 12. 31 공포)로 고성군이 간성군에 병 합(9개 면(面))
1919. 5. 15	부령 제88호(1919. 5. 9 공포) 간성군을 폐지하고 고성군으로 개칭 죽왕, 토성면이 양양군에 편입됨(7개 면)
1945. 8. 15	행방과 동시에 전 행정구역이 공산치하에 들어감
1954. 10. 21	법률 제350호(1954. 1. 21 공포) 수복지구 임시행정 조치법 시행에 따라 휴전선 이남 4개 면(간성, 거진, 현내, 수동)을 관 할함
1963. 1. 1	법률 제1178호(1962. 11. 21 공포)로 양양군 죽왕면 토성면 을 고성군에 편입(6개 면)
1973. 7. 1	대통령령 제6542호(1973. 3. 12 공포)로 토성면, 사진리, 장 천리가 속초시로 편입 대통령령 제6543호(1979. 4. 7 공포)로 거진면이 읍으로 승격
1979. 5. 1	대통령령 제94.9호(1979. 4. 7 공포)로 간성면이 읍으로 승격 (2개 읍 4개 면 관할)

문화유적



건봉사

- 위 치 :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 문화재 : 향로봉·건봉사지(국가천연기념물 제247호), 건봉사지(강원도 지방기념물 제51호), 불이문(강원도 문화재자료 제35호), 능파교(보물 제1336호)
- 특 징 : 한국 4대 사찰 중의 하나, 부처님 진신처아사리 8과 봉안



육송전후교

- 위 치 : 고성군 간성읍 해상리 1041, 탑현리 5
- 문화재 : 보물 제1337호
- 특 징 : 건봉사 능파교(1704년)와 비슷한 시기에 건립한 것으로 추정



간성교

- 위 치 : 고성군 간성읍 교동리
- 문화재 :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04호
- 특 징 : 공자를 비롯한 유교 선현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곳으로 매년 음력 2월과 8월 석전제를 지냄



청간전

- 위 치 :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89-2
- 문화재 :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32호
- 특 징 : 관동관경 중의 수일경, 이승만 대통령 친필 현판 현존



신암사

- 위 치 : 고성군 토성면 신암리 산 136-11
- 문화재 :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14호
- 특 징 : 전통사찰 제27호 및 '91세계쟁비리대회 종교의식 행사장으로 지정



왕곡마을

- 위 치 : 고성군 죽왕면 오봉1리
- 문화재 : 국가중요민속자료 제235호
- 특 징 : -금강산계 문화권으로 북방식 전통건조물 집단보존지구
-19세기를 전후하여 건립된 북방식 전통한옥 21동이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밀집 보존되어 있음



어말가가독

- 위 치 :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
- 문화재 : 국가지정중요민속자료 제131호
- 특 징 : 한옥식 전통가옥으로 37경 규모의 □자 복열형태로 옛 부유층 가옥구조를 원형대로 보존

임정글귀옥

- 위 치 :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375
- 문화재 : 강원도문화재자료 제78호
- 특 징 : 약 150년 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

이덕글귀옥

- 위 치 : 고성군 죽왕면 인정리 419
- 문화재 : 강원도문화재자료 제77호
- 특 징 : 1879년에 건립, 방 7칸, 부엌 1칸으로 건립

주요 명소

금강산

- 위 치 : 고성군 장전읍 일원
- 문화재 : - 금강산은 사계절 각기 다른 자태를 자랑하고 봄(금강산), 여름(봉래산), 가을(풍악산), 겨울(객골산)으로 불리움
- 금강산 육로관광을 계기로 국내·외 관광객 급증

동악전만대

- 위 치 : 고성군 현내면 명호리
- 시 설 : 전망대, 북한관 등
- 특 징 : 본단의 현장을 체험하고 금강산과 해금강을 조망

역사안보전시관

- 위 치 : 고성군 거집읍 화포리 일원
- 특 징 : 이승만, 이기붕, 김일성 별장에 유품 전시

해진포해안박물관

- 위 치 :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 규 모 : 지상 3층, 236평
- 특 징 : 어·패류 1,500종 40,000여 점 전시

해진포해수욕장

- 위 치 : 고성군 거집읍 화포리, 현내면 초도리
- 특 징 : 동해안 최북단 시범해수욕장으로서 기암괴석이 신비의 극치를 이루고 광활한 호수 주변에 웅장한 송림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수려함

송지도해수욕장

- 위 치 :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 특 징 : 0.7km의 깨끗한 백사장과 얕은 수심으로 해수욕장으로서의 최적지.
4km에는 주위의 경관이 수려한 죽도가 동해바다 위에
가로 놓여 있음

봉두대해수욕장

- 위 치 :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 특 징 : 7번 국도와 연결해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며 모토캠프장을 갖추고 있고 바다 레프팅 등
해양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접할 수 있음

삼포해수욕장

- 위 치 :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
- 특 징 : 깨끗한 백사장과 얕은 수심으로 가족단위로 이용하기에 적합하며, 해수욕장 앞 검은섬
과 어우러진 야경 일출은 가히 환상적임

백도해수욕장

- 위 치 : 고성군 죽왕면 문암1리
- 특 징 : 300m의 깨끗한 해변과 남동쪽에 백도의 아름다운 섬이 있어 많은 갈매기떼가 찾고 있
으며 경관이 매우 수려함

주요 문화행사

군민의날 및 수성문화제

- 시 기 : 9. 22~9. 23(2일간)/각년 개최
- 주요행사 : 수성지례, 불꽃놀이, 노래자랑, 군민상시상, 민속놀이, 체육행사 등
⇒ 향토문화 장달과 군민화합 한마당 개최

명태축제

- 시 기 : 매년 2월 중(3일간)
- 주요행사 : 명태노래자랑, 해양·문화축제, 지역문화 체험 등
⇒ 전국 제1의 명태고장 고유의 향토축제를 통한 관광으로 고성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
제 활성화 도모

관광 안내도



發刊辭



李炳燦
(高城郡文化院長)

우리 지역 高城은 秀麗한 自然環境과 함께 古代人들의 定着生活로부터 歷史를 形成하여 순박한 心性和 강인한 愛鄉精神으로 悠久한 歷史와 각조높은 文化生活를 發展시켜 왔습니다.

21세기 地方化 時代를 맞이하여 高城文化院에서는 高城 地域의 올바른 鄉土史에 대한 歷史的, 文化的 傳統을 啓發하여 傳承하는데 많은 努力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연차적인 사업으로서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高麗史節要, 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等 기본사서에 수록된 우리 고장의 鄉土歷史와 文化財人物 사회문화상을 古代 三國時代부터 中世인 高麗時代 近世인 朝鮮時代 近現代史까지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高皆骨의 高城을 만화로 發刊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歷史와 文化를 새로운 삶의 中心價値로 삼고 자연스럽게 우리 鄉土史를 傳承發展시켜 나가는데 努力해야 하겠습니다.

時間의 흐름에 따라 점차 잊혀져 가는 우리 高城의 古代부터 現代에 이르는 歷史의인 人物 및 史料를 再整備함으로써 우리의 貴重한 文化遺産과 歷史的 意義를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 郡民들에게 主人意識과 愛鄉心을 길러 주는 契機가 될 것입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高城의 鄉土歷史와 傳統文化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調査·研究하여 貴重하고 가치있는 만화로 본 高皆骨의 高城 이야기를 편찬하여 高城郡 鄉土史料集으로 엮어 주신 高城郡 文化院 鄉土史料 調査·研究 委員이신 차주문 위원님의 勞苦에 깊은 感謝를 드리는 바입니다.

축간사



咸 炯 仇
(高城郡守)

문화와 전통이라는 것은 '이어주고 이어받는 상호작용' 속에서 비로소 활성화되며, 나아가 역사적인 가치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고개골의 고성이야기」는 민족의 기원에서 고조선, 동예, 고구려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고성의 역사를 재조명함으로써 사라져가는 우리 고장의 전통과 향토사를 후세에 이어주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수려한 자연환경과 유구한 역사가 면면이 살아 숨쉬는 우리 고장은 이제 분단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남북 육로관광의 시발점이 되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문화유적은 물론 선조들의 즐거운 생활모습과 깊이 담긴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려는 「고개골의 고성이야기」는 우리 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더욱 고취시켜 고성의 위상을 드높일 것입니다.

또한 문화의 세기인 21세기 미래의 고성은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지닌 우리 지역의 문화를 중심으로 미래 지향적인 역사 문화도시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군민의 향토의식과 문화의식이 향상되어야 하는데, 이 책자를 통해 과거 선조들의 삶을 새로운 문화의 시대를 위한 이 시대에 조명하여 그들이 보여 주는 생활사를 살펴보고 현대사를 살아가는 생활지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고성문화원의 「고개골의 고성이야기」 발간을 축하드리고, 또한 집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차주문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군민 모두에게 유익하게 활용되어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각광받는 고성'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축간사



宋泰諫
(高城郡議會 議長)

군민들이 알면서도 모르고 잊혀져 가는 우리 군의 문화와 유래 및 역사에 대하여 고개골(高峇骨)을 주인공으로 한 고성 이야기 책을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향토사(鄕土史)는 그 지역과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면서 발전적인 미래의 새 장(場)을 열어가는 가교역할(架橋役割)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바쁜 일상 생활로 늘 잊고만 살고 있습니다.

이번 고성군 문화원에서 발간한 고성 고개골은 단군시대에서 현대까지를 군민 누구나 알기 쉽게 볼 수 있고, 이해가 빠르도록 만화기법으로 재미있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고장은 옛부터 유서깊고 자연경관이 수려하며 인심이 온후한 지역으로서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으며, 우리 나라 제일 명산인 금강산을 비롯하여 관동팔경 중 삼일포(三日浦)·송석정(叢石亭)·청간정(淸澗亭) 등 삼경을 갖고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또한 건봉사는 임진왜란시 사명대사(四溟大師)가 승병을 양성하였고 한용운(韓龍雲) 선생이 봉명(鳳鳴)학교를 설립 일제하의 민족사상 계몽교육을 하였던 역사적인 국난극복의 유적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군은 금강산 육로관광이 실현되므로 통일을 대비한 남북 고성의 지역 전통문화와 향토사를 새롭게 정비할 때가 되었으며 군민 모두가 우리 지역 전통문화 및 향토사를 발굴하는데 슬기와 정성을 모아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성 고개골 발간을 위하여 자료수집과 현장조사에 이르기까지 심혈을 아끼지 않으신 이병관 고성군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고성 고개골지가 군민 모두에게 널리 읽혀지고 우리 군을 알리는 홍보물로 크게 활용되기 바라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고 전통문화의 맥을 전승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 4.

글을 마치며……



車 周 汶
(짓고 - 그린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는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상에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성 땅에는 문암리 선사유적이 보여 주듯이 기원전 6000여 년 이전부터 사람이 살아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장구한 세월 동안 사람들은 바뀌었어도 산천은 바뀌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가 이 땅을 밟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끊임없이 이어 살아갈 것입니다.

아득한 그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 땅의 숲에서 뽑아 주는 산소로 호흡하고 땅 속의 영양분을 섭취하며, 이 땅의 샘에서 솟아오른 생명수를 마시면서 자신들의 몸을 보위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땅의 고마움을 안 이 땅의 선인들은 땅을 가꾸고 보살피며 황무지는 옥토로 바꾸어 왔습니다. 또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마다 목숨을 아낌없이 바쳐가며 이 소중한 땅을 지켜왔고, 배고프고 땀바라는 삶 속에서도 사랑과 한과 눈물을 땅에 심으며 '금강산이 있는 아름다운 고장 고성'을 꽃피워 흠집 하나 없이 오늘의 우리에게 물려 주었습니다.

이렇게 귀중하고 값진 땅을 물려 받은 오늘의 우리는 이 땅에 묻힌 선인들의 눈물과 한과 사랑의 역사를 「향토사」란 이름으로 하나하나 찾아내어 그들의 기록한 뜻을 알리고 이 땅을 더욱 다듬고 가꾸어 다음의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럼없이 물려 주어야 하겠습니다.

수년에 걸쳐 고성의 관련자료를 모으고 현장답사도 하였지만 이 모두를 다 수록하지 못하였고 또한 아쉽게도 찾아내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비록 짧은 식견과 무던 솜씨이나 학생, 주민 그리고 우리 고장을 찾는 분들이 고성의 향토사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책 발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이병관 문화원 원장님 그리고 남병욱 사무국장님께 지면을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는 앞으로 더욱 더 정진하고 연구하라는 뜻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화) 고개골의

고 성 이 야 기

글·그림 자 주 문



차례

1. (만화) 고개골의 고성이야기	13
--------------------	----

2. 고성관련 고서비고	127
--------------	-----

3. 조선시대 고성의 재애일람	143
------------------	-----

4. 북고성	161
--------	-----

《도움 주신 분들》

- 달홀사랑픽(<http://darhol.com>)
- 고성사람들(cafe.daum.net/kspeoples)
- 119가족들
- 봉 산 이영선 선생님
- 대 전 김성연 님
- 만화가 안중걸 님
- 강 룡 이재호, 박동석 님

어려운 일네?



여러분과 함께 고성어야기속으로
떠날 그 계곡이라고 해.



오잉!



계곡까지라니?



히히히.... 뭇길 달았나?



넌어 가고



어찌 되었든, 난 금강성신경의 자손으로 겨울 금강산의 이름이
서 따른, 즉 계곡(계곡)이야, 알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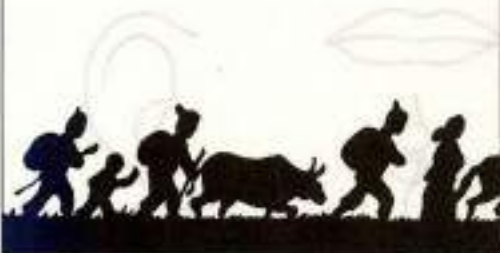
그럼 숲속 고성어야기속으로 떠나 볼까?



.....우리는 어디서 있을까?



아득한 옛날,
파미르 고원에서 냉랭한 우리의 조상들은
바여칼호를 거쳐



다시, 해가 떠오르는 광명의 신전지를 찾아 동으로
동으로 이동하여 마침내 민족의 영성인 불협산(태백
산·백두산)에 도달하게 되지



본디 광활한 조원토 누비던 북방 가마민족이었던 우리 태달
겨려는



태달(밝은 달) : 박달(밝달)에서 송, 밝 - 밝은, 달 - 달

토착민과의 경합을 통하여 오다가....



단군왕검이 여사달에서 나라를 세우니 나라 이름이 곧 '조
선'이며 이때가 기원전 2333년(무진년 삼달 초사흘)이야



아사달(새땅, 시작하는 땅) : 아사 - 새, 처음 시작

여기서 잠깐!
우리 겨레의 생김새에 대하여 한 번 살
펴 볼까?



우리 겨레의 얼굴 모습은 당경모습과 거꾸로 당
경모습이 주류종 이주대, 주운 북방에서 오래 살
아온 탓에



해로운 바람과 열에서 부는 바람을 막는 데 도움
이 되도록 눈이 작고 광대뼈가 두드러지게 되어
나온 편이지



코는 곧은 편이나 코숯(비강)이 납작할 뿐으로, 이 모두가 주먹을 쥐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진화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남 여

입술은 중간너비 정도가 많고, 귀 모습은 귀전 볼록귀가 대수를 이루고 있어



주변 사립들을 잘 살펴 보.....
다시 민군 헤어지지 여가자로 돌아가서



단군왕검은 나라를 세우면서 옛부터 내려오던 말을 건국이념으로 삼았는데 이것이 바로 '홍익인간' 정신이야



홍익인간(弘益人間):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함

단군왕검은 백성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자 하지 부우어가는 절그릇 만드는 일을



부우단지(부우가리): 흙바라 아래 판을 깔고 등기에 씨를 심어 두었다가 10월에 새 씨를 갈아 넣고 심벌레 올리던 단

둘째 부우어가는 의약과 질병에 관한 일을



셋째 부우어가는 짐승의 피해를 막는 일을



석성팔(돌서냥): 산길 곳곳에 돌부치를 깔아 위급시 이용

넷째 부우어가는 여정을 맡겨 풍성한 풍수를 세우게 하였고



냉기(凝氣)여리: 시집, 장가가기 전의 어린사람이 머리를 받아 영기를 태던 풍습도 이때 시작 됨

정후에게는 누에치고 옷감짜는 일을



신하 고시에게는 농사에 관한 일을 맡도록 하니



은 백성의 생활은 온통해져 풍요를 누리게 되어
일금의 덕을 거리게 되고, 군군영장이 행하던 제천
행사는 오늘 날에도 이어지고 있어



오늘날
돌아 나가 음식을
먹을 때
첫 술경우 때
주위에 뿌리면서
고시라고 하는
경도의 말인 농식품
관할하면 고시에
대면 고마움을 잊지
않고 감사함이다



당시, 사람들은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나 겨울철이
가 끝난 후에는 수도(首都)에 모여 라놓여 제사를
지내



제사 후에는 복치고 나뭇을 붙대 노래와 춤,
활쏘기, 덩타기, 주먹소리, 칼쓰기등 신명나는
전치가 벌어 지지



수도 둘레에는 넓은 나무를 심고 가꾸었으며,
선성한 곳이라 죄를 지은 사람이 도망쳐 들어와
도 잡아 갈 수 가 없었고



안에는 따로 집을 지어 젊은이 등에게 궁뎅기,
예절, 노래와 춤, 말타기 등을 익히게 하며, 다섯가
지 계율을 지키도록 하였어

- 나라에 충성
- 부모에 효도
- 선구와 신의를 지키고
- 학문에 서 유감하며
- 아홉 사람을 어떻게 대하



대문에는 방울과 북을 달 큰 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를 솟대라 하여, 수두는 솟대에서 배춧단
달여지



지금도 시골마을 어귀에 큰나무를 세우고 그 위
에 새를 조각하여 얹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마을의 질병과 재난을 막기위해 세운거야



도리도리, 짹짹, 곤지곤지.....
애 볼 때 한번씩 해 댈지? 이를 단군 어린이 신
계명이라고 해



도리도리 -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율동, 목 경
직을 풀어주어 기가 탄힘없이 소용한다



짹짹 - 손뼉을 치는 동작, 손에 있는 경혈이 유
전체를 자극하여 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몸을 따뜻하
게 해준다



곤지곤지 - 짐게 손가락으로 다른쪽 손바닥을
찍는 동작, 손바닥에 있는 내장과 직결된 경혈
을 자극 집중력을 경려 주는 운동



췌엄췌엄(쟁쟁) - 손을 췌엄다 폼다 하는 동작,
손과 팔에 힘이 오르게 하는 동작



.....이는 아기들에게 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힘이 잘 자라도록 하는 단군할아버지의 가
르침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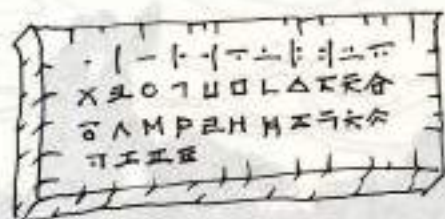
당시, 우리에게는 어떤 글자를 사용 하였
을까?



고종실의 영역을 넓고 넓어 다물과 다물이 서로 멀리
로 나뉘어 있으므로 지명사투리가 발달하고, 같은 거리
로 멀리 떨어져 있어 서로 멀리



가죽 명금띠에 용보름 바사가 글자를 쉽게 쓸 수
있도록 정리 하니 이것이 가림토글자야



가림토 : 가림-가름을 가린다. 토-가름의 뜻을 분명히 한다

후면질을 해래에 "그대의 문자를 모넸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가림토문자가 한글을 만드는
데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지



서양인 들어 좋아 하는 숫자가 7인데 반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밀접한 숫자는 무엇일까?
.....삼(3)이 아닐까?



내가 장거나 바둑을 둘 때



싸움을 겨룰 때



삼다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아이를 징지려 주는 삼신할매가 그렇고

헛다!
바깥 세상에서
잘 살아라



여러서 결국 높은 아들은 웬만해서 이 세상에 나오
게 되

삼신할매 순명자국(KS마크)



풍고한점 : 어린이가 평일이에서 등에 걸쳐 나타나는 무문장,
7-8세 때에 사라짐

아이가 태어나도 삼칠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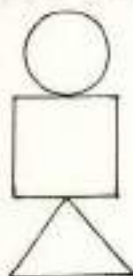
사람이 죽어도 3일장, 3년상



神도 三神이다

만물을 이치며 맞도록
만들고 : 천신(天神)-한님-○-청색
기르고 : 지신(地神)-궁-□-황색
다스림 : 인신(人神)-천자(단군)-△-적색
하늘, 땅, 사람(천지인) 곧 삼재(우주)를 나타냄

우리 민족은 인신(조상신)을 믿는 유일한 민족임



사람모형



삼태극

가 나 다
한 글
배달겨려
ㅏ ㅑ ㅓ ㅕ

한글

3 곧, 천지인 사상은 우리에게 항상 의정하게 의
달아 주고, 지난 날 어린아이들의 놀이인 육자(사
경)놀이에서도 찾아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숫자 3에 대하여는 많은 관심을 갖고 우
리 주변에서 찾아 볼 것 예



말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겨레가 살고며 문명
한 민족이었다 함은 '동여'라는 말에서 찾아 볼 수
있어



東夷

중국인들은 우리겨레를 동이라 불렀는데, 동여의
뜻은 본래 '어질다', '군자가 죽지 않는 나라', '화소
거를 잘하는 민족'이라 함인데



동이(東夷): 동쪽의 큰 땅을 쓰는 대인, 夷大(크다)+명(명)

후, 중국인들이 우리겨레를 낮추어 부르게
해서 '오랑캐'로 변질된 것이라



동이족의 분포도



동여족은 청동기 문화와



청기문화를 주도 하였고



철(鐵)=금(金)+이(夷), 鐵의 옛자(쇠는 夷에서 왔다)

해상교역을 선행하였어



해협전(日濤淵)을 사용하였고 지금도 돈을 의미하는 글자에는
의(의)가 들어 있다(銀, 財等)

동여족이 '강력하고 문명한 겨레'였다는 사실을
금자의 말에서 찾아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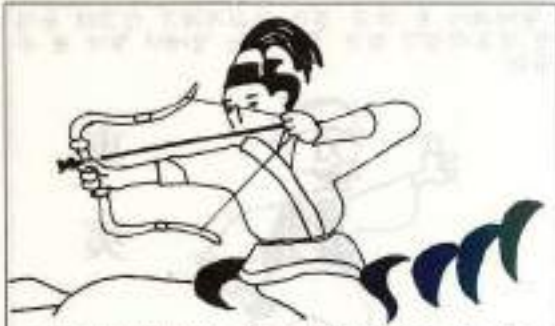


동여: 九夷(黃, 白, 玄, 赤, 風, 陽, 于, 夷, 獸夷)

.....둥이가 쳐들어 왔으면
나도 피발과일을 런치
못 하였을 걸.....



피발과일(枇발古推) 머리를 들어 뜨리고 온갖을 왼쪽으로 프
법(둥이족의 머리는 살부와 피발이 있었음)



고구려 벽화에서 알 수 있듯 배달겨레의 옷은 과일이었으나
불일신과 패부터 당피 문물을 받아들여면서 주일므로 마원
○ 과일은 활쏘기에 편화도복 고안된 옷임

궁자는 죽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중국 진시황을 영실하려 명령수레를 철되르 내
려 친 '장해역사'도 역시 동에서럼어지



진(秦)의 통역로 둥이족은 분선되고 선동
반도 일대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



만리장성의 동쪽부분엔 삼해공에서 모동몽 엿는 선운
둥이(조선)를 영두려 영은 것이라



....진시황



진시황은 늙어 가면서 죽지 않으려고 선약(仙藥)을
구하려고 열안이 되었어



이때 서불이랑 자개 나타나

조선 삼신산에
가서 제가 구해
올테니.....
3000억만



부노조를 구하려 간 서불은 정년이 두 번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동국으로 들어가지 않고.....

개. 왜 안가는 거야.... 끝



여기서 북한 삼신산은 봉래산, 배정산, 영주산을
말하는데 그중 하나만 봉래산이 우리 고성땅에 자
리하고 있어



봉래산(강계산), 배정산(거리산), 영주산(한라산)

2000년 역사를 지닌 조선(조선)제국은 기원전
108년 한의 침입과 내분으로 멸종 내리고



이 곳 영동지방에는 동여국(東瀛國)이 서게 되



동여국은 정적, 근심하고 보병전투에 능함이며



언어와 풍속은 그구려와 같았지만, 의복은 국적
을 띄웠는데 남자는 종이 꽃을 만들어 장식을 했
으며



복장 : 꽃 바레가 달린 옷, 두루마기는 직방의

마직과 장면이 발달 하였고
사면 병을 보고 한 해의 농사를 짐치기도 하였어



같은 씨족간에는 혼인을 하지 않았고

동성동본 결혼 절대 반대 이유서



집안에 질병이나 사병자가 생기면 곧 집을 헐어 버리고 새 집을 다시 짓곤 했지



돌산물로는 단궁, 과하마, 반어피등의 선종지로 유명 했는데



단 궁
반어피
과하마

단궁(檀弓)은 고조선때부터 내려온 화로 써리나무로 만든 화살에, 이쪽 지방의 돌로 만든 화살촉을 사용하는데 의도 통을 정도로 위력여 좋아



반어피(班魚皮)는 물개 가죽을 가리키는 것으로 중국으로 수출되었고, 지금도 성실하게 알 배다여 물개가 중한하고 있지



과하마(果下馬)는 말 그대로 과일나무 밑을 지나 다닌다 하여 불리어 된 이름으로 놀이기구 적어하여 볼고면 조영말이다



여하 여하는 말을 나면 제주도로 안 보내고 고성(邑)으로 보낼나 보



10원이면 고구려의 동맹이나, 부여의 영고와 같이 무천(舞天)이란 계절제를 지내



하늘을 향해 손을 쭉다는 뜻인데 남녀노소가 머
질 땀을 흘리며 가무를 춘다. (18세미만 미성년
자는 손을 절대 마시지 않았음)



특히, 동예인은 산천을 중요하게 여겨 각기 경계
를 삼아 땅부터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월경자는 제화(貴冑)라 하여 노비, 소, 대동
으로 배심하여야 했어



호수(戶數)는 2만여 호였고 군주(君主)가 없었던 것이
특징이며, 호랑이 선(선선)을 섬겼고 지금도 우리 고성
에서 날마다 동계(洞祭)를 지내는 풍습을 볼 수 있지



두에는 고구려어로 별칭하지 못하고 함경도지방의
속저와 비슷한 시기에 고구려에 복속되



두예의 예자를 濊, 濊, 濊로도 쓰였는데 그 당
은 물론 따라 다닌다, 더러운 땅, 오랑캐란 뜻
이며



그럼, 우리가 더러운 땅에 사는 오랑캐냐?
어는 중국 동북방에 살면서 중국에게 명복을 하
지 않고



만주, 한반도 병합으로 여동해 가자 중국인들이
날주어 부른 것인데, 아무 생각없이 받아 적고, 부
른 우리들이 더 문제가 아닐까?



우리가 중국어나 일본인을 낚초아 부를 때 되놈(피놈), 쪽발이라 부르는데 그들 자신은 그렇게 쓰고 부를까?



어쨌든 예나 대륙은 동여름의 한결같은 여름이 기원전 7, 8세기에 고조선의 주류를 이루었다는 설도 있어



영 줄 거리 열흘경, 우리 고성막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는지 그 흔적이나 찾아 가 보자



영동지방에서는 구석기 유물이 발견된 곳이 없어, 일대전까지만 해도 명명 오산리 선사유물로 '우리고성'에도 그 시대에 사람이 살았을것구나 하고 추측만 할지



그런데 99. 3월경 죽왕면 문암리에서 출토된 몇부된 토기와 최하층에서 집자리가 출현됨에 따라 오산리 전기 신석기(BC 6000년전) 사람보다 훨씬 신석기 시대에 사람이 살았을 가능성이 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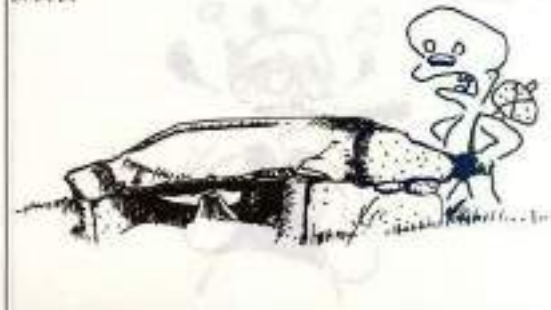
정동기시대 유물로는 토성면 유촌리의 민무늬 토기, 동경과 현내면 풍정리·선한리·조도리의 민무늬토기, 석기, 고인돌이 있고



초기청기시대와 유물로는 거천읍 화포리의 붉은 경토기, 태남유네토기, 민무늬토기와 죽왕면 문암리의 민무늬토기가 있어



고인돌! 고인돌은 동남아시아와 북유럽에도 있으나 사람의 무덤으로 쓴 것은 우리나라 역사에만 나타나



화전포 호수 주변에 가면 고인돌을 여러 개 볼 수 있는데 정동기시대 추장의 무덤으로 주목되



고인돌의 덩개돌이 큰 것은 50톤이 넘는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옮기고 조성했을까?



우선 땅 파기지는 바위를 굴러 바위에 난 작은 틈에 공을 파고, 나무줄기를 박고 물을 뿌리면 나무가 물에 젖어 썩어떨어지면서 바위가 갈라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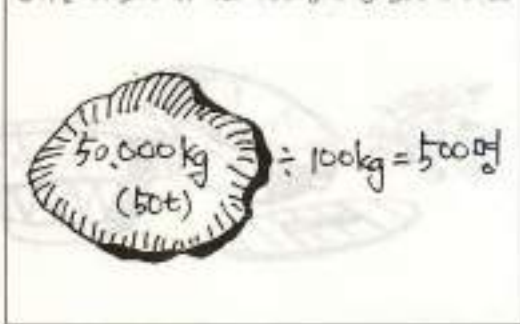
꽤 큰 덩개돌이 큰 돌나무를 여러개 짊어 수백명이 당 거나, 아니면 겨울엔 경우 땅에 물을 뿌려 얼린 후 막아서 운반 하였을 거야



운반된 덩개돌은 먼저 묻어 둔 고인돌 위로 올려 놓고 고인돌 주변의 흙을 제거 함으로 고인돌조성은 끝난다



50톤의 덩개돌을 기준으로, 포크레인도 없던 시절에 모든 것을 인력으로 한다면, 일인당 100kg씩을 나눈다 하여도 500명이 동원되어야 해



노약자, 여자, 어린이 등을 제외하고 청장년으로 이 수를 다뤄줘야 한다고 생각하면 고인돌이 조성된 주변에는 최소 2~3천명가량의 사람이 모여 있었다고 봐야 되



화전포 고인돌은 규모가 조금 작지만, 당시 화전포 주변에는 어릴 적에도 1천여명은 모여서 지 않았을까



현재 현대인 전체 인구가 4,900명 정도 인 것으로 보여선 상당한 숫자일대



그럼 왜 이렇게 화진포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을까하는 궁금증이 생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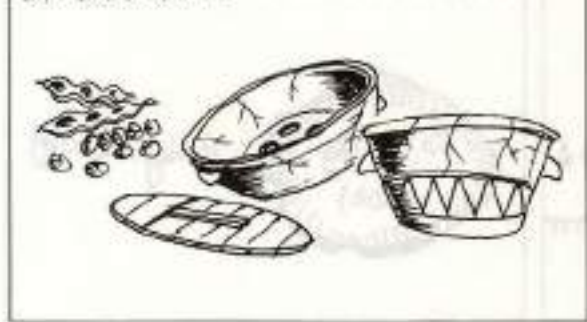
농사는 신석기시대부터 시작 되었지만 호수나 해안에는 '움직이지 않는 실고기' 조개등을 쉽게 얻을 수 있었고 또 다른 먹음거리가 풍부하였을 거야



그리고 북서쪽에 자리한 신라리와 고성산은 북쪽 계절풍을 막아 주고 남쪽의 들판은 옛 사람들에게 생활하기 용이한 자연환경을 제공하였기 때문이야



함경북도 나자에서 청동기시대 시루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이때 고성지방에서도 농을 어윰한 뒤장, 견장을 담갔을 것이고



배추, 마늘, 고추는 아직 우리나라에 전해지지 않은 시기이니 무꾸(무)에다 들을 붓고 소금을 넣어 만든 찐지(김치)를 먹었을 것이다



이 시절 사정 적을 때 김치대신 '찐지'라며 찌웠을 것



자! 이제 그렇하고 고구려로.....



우리 민족사상 주선(조선)제국 이래 가장 강력하고 융대한 국가를 형성하였던 고구려



고구려는 주몽(주모)이 기원전 37년에 건국하였
다 하나 아직 그 시기에 대해 논란이 많고



어쨌든, 주모는 풍수굴(龍水窟)에 도읍을 세우고 나
라 이름을 '가우리'라 하였어



'가우리'는 어두자로 高句麗라 쓰니, 中京, 中
國, 가운데라는 뜻이야



지금에 우리는 고구려 하면 어떤 생각을 하나?
호전적이다. 기마민이다. 넓은 영토를 지닌 나라였다는 식으로
먹연하게 어떤 동경과 영수면 관직하고 있지 않을까?



.....음, 그렇다면 고구려가 어떤
나라였는지 살펴 볼까



먼저, 고구려 건국이야기인 '동명성왕'에 해모수
가 오룡거(五龍車)를 타고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
려왔다는 대목이 있어



이 신화세계에서 수레가 등장한다함은 이미 말하
나 귀족사회에서는 교통수단으로 일반화 되었다는
것이고, 그 사실은 고분벽화를 보면 알 수 있지



수레를 사용하였다하면 도로의 발달을 가져 왔을 것이고, 도로의 발달은 고역의 발달로

고역의 발달은 부의 축적으로, 부의 축적은 정부 국가 시대에서 많은 군대를 거느릴 수 있게 되었지.



고구려군의 작기전 전쟁수행과 군수물자의 원활한 보급에 가능 하였던 것은 바로 이 수레의 역할이고

또, 수레의 운송무기로는 중차(衝車), 운차(雲梯), 포차(抛車)등이 있어



적의 침공로를 제공할 수 있다고 도로를 내지 않고 가마나 지게여 의존하면 (이제)조선하고는 크게 구별되며

어려한 밀병침은 곧 동해와 서해를 내해로 결계되는 해상제국으로 이어지치



정복사언이 정하였 고구려인들은 조구들 온통에 서의 일식생황을 하였으며

궁궐과 성을 잘 쌓기로도 유명했어



선비(仙人)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선비(선비)는 신수도 대제에 모든 사람을 모아 경종,
활쏘기, 꺾금장, 태권, 노래, 역술 등에서 두꺼운, 사냥 등
으로 승리한 사람을 영접하며



이들은 평시에 선수형질, 성격상기, 군중
경승, 격투기 등을 하며, 그 중 선형과 학문,
기술이 가장 뛰어난자를 뽑아 스승으로 삼
거



그 스승을 삼코마리라고 하며, 정시에는 한 단체
를 결성하여 싸움터에 나가서, 이기지 못하면
죽음을 걱정하므로 가장 용감하여



이런 싸움터들의 용맹성이 고구려의 국력을 뒷
받침해 주었던 것이다



'선비' 경기의 하나인 수복(手拍)은 중국으로 돌
아가서 권법이 되고, 일본으로 건너가 유도가 되
었으며



고구려가 왕하자 '선비'의 명칭도 유고도에 배앗기
고, 선비들이 꺾금마리를 한 탓으로 화성 어린 숙면
말에 잘못 쓰여져 내려 오고 있지



수복 역시 여조에서 유공을 천하 여건 여
려로 그 자취가 거의 전멸 하였어



도널은 민주변판과 대륙을 정주하던 고구려인들의 거성



그 고구려인들의 숨겨져 우리 고성땅에도 스며
있을 우리는 자랑스리게 생각하여야 하지 않을까



문헌상에 기록된 고성과 건성의 최초지명 '달동'과 '가라동'은 고구려식 지명이며,



고성은 고구려때 '다라구루'라 불렸고 여
두자로 達忽이라 쓰이며



달동(達忽)에서 達은 산(山), 동(通=通乙), 땅(地)을
뜻하고, 忽은 집단 거주지역으로 성(城), 읍(邑), 촌(村)
을 뜻하지



높은 곳(대우)?.....
하여 그럴 수 밖에, 전하제일명선 금강선이 있는 곳
이니



건성은 '가라구루(加羅魯)'라 불렸는데 加羅는
제방을 쌓아 냇물을 막아 만든 큰 소(大沼)를
뜻함 때문



가장자리, 변방을 뜻함 때가 있는데 여기서는 건
성이 고구려의 변방이었으므로 후자가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지금도 매년 9월 하순이면 열리는 '수성문화제'의
수성은 건성의 옛 지명이며



우물어 덮어 해뵈지?

이 우물어는 부여의 사육도나 고구려의 오개(오부족)전통에서 온 것으로 무재 신채호선생은 보고 있어



도(刀) : 도여지, 되지 - 鎗加(저가)

개(介) : 개 - 拘加(구가)

갈(乞) : 갈양 갈(陽) - 羊加(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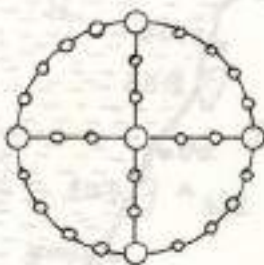
우(兪) : 우는 소의 영달 - 牛加(우가)

모(毛) : 물(毛)모로 말 - 馬加(마가)



도 - 개 - 갈 - 물 - 모
刀 - 介 - 乞 - 兪 - 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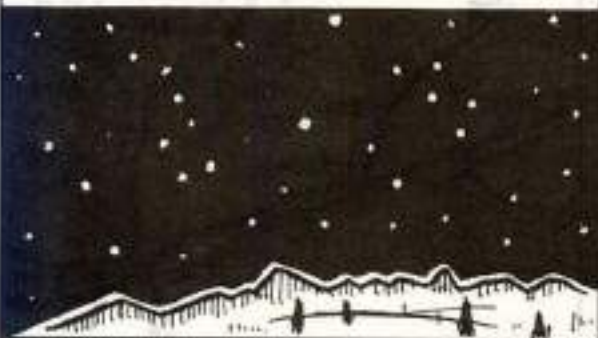
각족의 크기로 별들을 정렬했을 것이고
우편은 우주의 원리를 상징적으로 덮어 낸
것이다



우편의 29개점중 가운데 1개점을 제외한 28점은 달
의 공전주기(27.32일+28일)와 하늘의 별들을 나타내는
28수와 일치해



가운데 달판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별의 움직임을 표현 하고 있으니



어쨌든 놀이에서도 우리 선조들의 우주관이
잘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지



다시 돌아가서-

고구려의 남해정책으로 고구려의 남계는 경
상도 지방까지 내려가



그러다, 신라 천후왕 12년(556)에 비영동(영남)에 주
성치한 것으로 보아 우리 고성도 신라의 땅이 되었
을 것이고



568년 고구려의 공격으로 성려는 비열풍주를 폐지하면서 덕풍(고성)에다 주(州)를 성없이



그 후, 고구려는 7c 초에 옛땅 고성을 다시 찾게 되었으나



연계소문 사망(666)후인 668년 내분과 내
당연결군에 의하여 고구려는 멸망하고——



외세(당)협조와 대동경에서 원선만을 경계로한 영토의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하 통일과 함께 고성온 신라의
의의으로 돌아가게 되



전국여성민 다문(多勿:엠평 회복)정신과 살수대피소의
전국민회 합침으로 여투어년 정야전술로 수군 200명대용
무리했던 고구려인들의 기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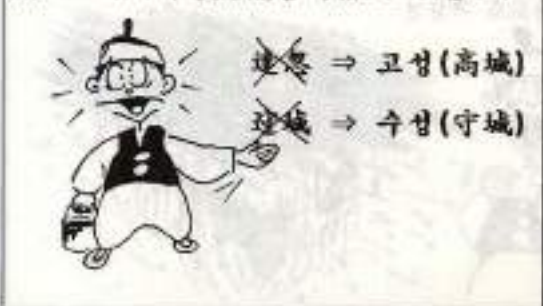


철야가산(徹夜加山): 풍광을 배워 적이 세력을 얻지 못하게 하는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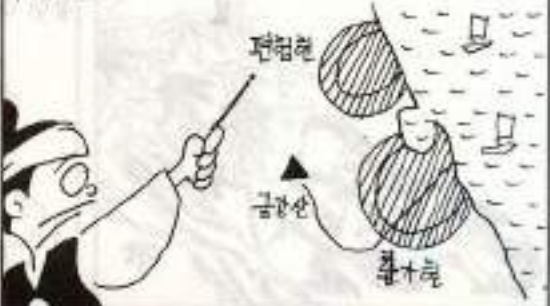
또, 외세로 부터의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하였던 그런 고구려가 어떻게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통일 후, 신라는 지방행정구역을 9주5소경으로 나누고, 경덕왕때 팔호를 관역(漢譯)하여 고성(高城)으로 하고, 수성(豆城)을 守城으로 고쳤으며



명주(9군25현)에 속한 고성군은 황거현(운정리 주변일대)과 편염현(운정리 주변일대)을 속현으로 두게 되고



수성군은 동산현(산령리 주변일대)과 의령현(영일)을 속현으로 두게 되



산령은 중국의 여를 따라 중오설천 및 사범여 제사(大·中·小祀)를 지냈는데, 소사 24곳중 두 곳이 고성군의 설악(霜岳)과 수성군의 설악(雪岳)이며



.....설악(霜岳)이 어디냐구?

설악은 '서리'로 금강산어어, 금강산의 또 다른 이름이지



말 나온 김에 금강산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나 알아 볼까



금강산은 봉래, 풍악, 계곡, 설악, 선산, 기담, 열반, 중립성등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어



봉래는 앞에서 말한 조선 설신설의 하나를 이 설에 다 결부시킬 데서 생겨난 이름으로, 북어 두성했다는 뜻에Geom-san



풍악은 가을이면 산이 온통 단풍천지로 되는 까닭에 붙은 이름으로 가을산이고



내 이름 계곡은 겨울이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흰 눈에 덮인 기묘한 바위 돌만 우뚝우뚝 솟아 있는 것이 마치 배만 남은 것 같아 붙인 이름으로 겨울산



고급이 병풍처럼 펼쳐진 계곡과 산악의 아름다움



거대한 바위와 호수, 바다의 조화



청 파라, 날씨 따라 변화무쌍한 자연을 뽐내고



다종다양한 동식물들



곳 곳 바다의 동물, 유적.....



'나무꾼 종각과 성녀' 등등등 수 많은 전설



어느 시인, 화가인들 금강산을 다 표현할 수 없
오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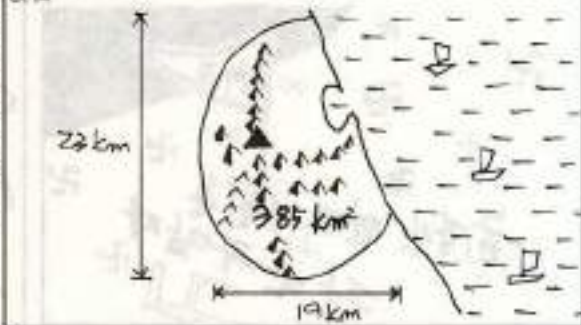
어 금강산의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은 나라 밖
서도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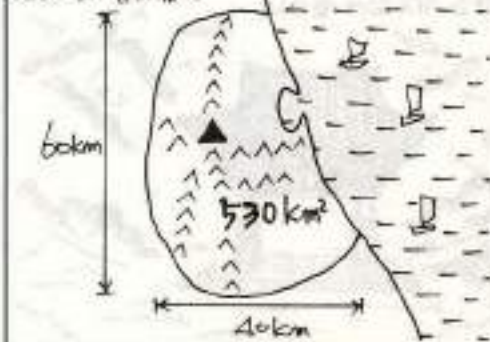
금강산은 고성군과 회양군(금강군) 그리고 동해군의 일부에 걸쳐 놓여 있으며



둘서 19km, 남북 23km, 면적 385km로 고성군이 68%, 금강군이 30%, 동해군이 2%가 분포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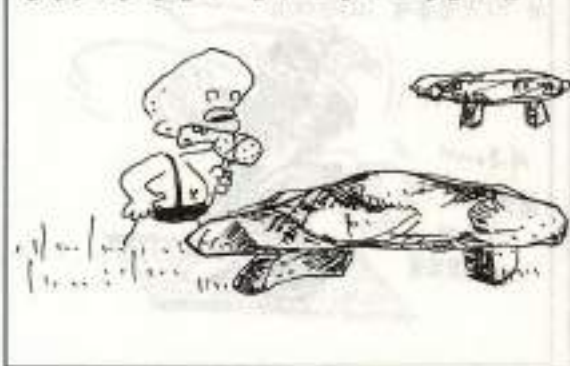
북한에서는 둘서 40km, 남북 60km로 면적은 530km로 정고있어



신선기, 청동기 유물로는 활촉, 석검, 도끼, 반달칼, 강동 등이 출토 되었으며



금강산에는 순경리·현리·소곡리 고인돌이 있어



금강산은 본래 선인의 사는 고장으로 말하여 옛날 '선산(仙山)' 이었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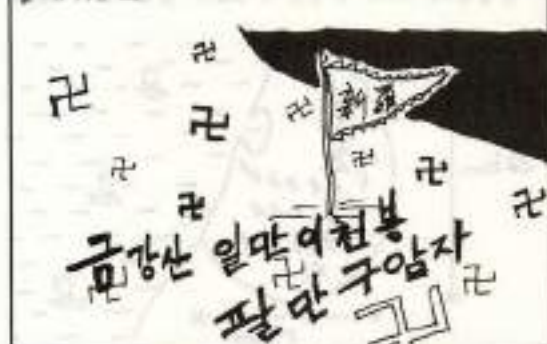
고구려 때 불교가 전래(372)된 후, 5c말 6c초부터는 정(성운암, 보운암, 선계사, 경봉사)이 세워지게 되



고구려 말기에는 유교, 불교, 도교 세 종교를 다 같이 정려한 탓에 성행하지 못해다가.



7c말 신라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부르는 많은 사절이 들어오게 되



만주동, 경주성, 구룡연, 오성봉, 삼선암, 영랑호, 구선봉등이 자연지세의 특징이나 신선의 여흥에 따라 지어진 이름이라면



선가봉, 세존봉, 범기봉, 세지봉, 명경대, 황전 경동은 불교식 이름이며



전국 11대 사찰중의 하나인 경복사. 아도화성이 신라 법흥왕 7년(520년)에 원각사로 정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아도화성은 고구려에서 신라에 불교를 전파(1120년)한 육호자의 동굴이며



신라가 불교를 광언 할 때는 여차들의 순교가 있었음 527(법흥왕 14)년이고



신라가 고성대에 세력을 미친 때는 bc 중반(550이후)인 것으로 보아



이제 시대의 나라와 사람, 어느 것 하나 무엇 남아



5c초 사람이 100년을 거슬러 올라와 6c초에 정을 세웠다는데 여쭙는데.....



이는 후대 사람이 기록함에 있어서 적오가 일어난 것 같아



신라했던 여오르는 '화령(花郎)



화령은 신라를 한 때 크게 일어나게 한 원인이 되었



통일 후, 향문회가 발표하여 삼대주의파의 사상, 풍속, 예술등이 온 나라를 중국화하려 하자



이에 당당히 맞서 내치하여 우리의 자주성을 지켜 온 것이 바로 화령이지



화령의 일전을 두레나 고구려의 조역선인(白衣仙人)으로 보고 있는데



국선·화령(國仙花郎)이라 하면 정말로 보아 국선(國仙)은 선인(仙人)과 구별하고자 한 것이고



선배가 조백(阜伯)을 얻어 조요(阜表:배승이름)라
이름은 것과 같이, 화랑을 시키므로 화랑이라 하였
어



화랑들은 국방상 필요한 연재를 양성하고, 상무
정신을 고취시키고



통지도자인 국선(1~수명), 지도자격인 화랑(3,
4~7,8명)이 있고 화랑은 각 문호(문대)를 두고 수
천의 남도를 거느리게 되



고성어 있는 상열포는 영랑등 4십선이 3일경
놓다 갔다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여기서의 영랑등은 설화상의 인물이지, 아니면
역사상의 인물인지는 모르하나, 역사상 고증은 불
가능 해



어찌 되었든 사선(四仙)은 영정, 승정, 연정, 남정
형의 4국선(國仙)을 말하고 있어



상열포 36봉중 남연봉 바위(면석암)에 신선
들이 '영랑도 남석형' 글자를 세자씩 두줄로 붙
여 글씨로 새겨 놓았는데



15c까지는 모든 글자가 두줄이었다 하나 20c초에는
'永·石'자 두자만 보였네.



옛날, 어 선선들이 쓴 글자를 보기 위해 편의 행자가 덩자, 시종과 접대어 건디다 못된 백성(또는 고성파수)들이



이 단서들을 들로 지렁이 물속에 처박아 넣어



지금은 물이 적을 때면 어쩔곳이 볼 수 있어



삼일포의 유래나 금강산 영랑포·영랑봉, 죽령, 관악산, 선유담, 속초 영랑포(옛 관성군)의 영랑이맛을 알외 이들과



어 곳에 당시 국경과 가장고 산천이 나타나 호랑이 수련장으로 적정지었던 정으로 보아



우리 고성은 '화랑'고는 무관하지 않았을 거야



698년 고구려 영락에서는 무민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여 우리나라는 남북국 시대로 접어들게되



어느 화자는 화해 발해의 남계가 경흥 연국전까지 있다고 주장하나 아직 정설이 확립되지 않았고



신라는 백제와 이후 155여년간의 영위정략전과 국호들의 부패의 시작, 항적



농민의 봉기, 지방세력(호족)의 성장으로 혼란을 맞게 되고



이 혼란을 틈타 독자적인 정권을 수립하여 신라 정부에 대항하는 이들이 나타났는데



이들은 국가 체제(정체)와 고구려(고)의 부패를 부르짖으면서 나라를 세워 신라와 대립하게 된다



이 때가 후삼국시대이고



891년 궁예가 명주를 거쳐 북상하여 강원도 북부를 점령하고 다시 영서(영제, 의주, 금오, 정원)를 점령함



이 곳 고성도 후고구려의 땅이 되었으며



918년 고명하고 무능한 궁예가 물러나고 왕건이 고려(고구려의 후계자)를 건국하면서 고려의 땅이 되



935년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이 군신회의를 열어 전념사적(戰慄事蹟)을 그려에 태치고



경원(京原)과 신경(新京)의 내분이 일어난 후백제는 서산전투에서 고려군에 패하여 멸망함으로써



그런데 936년 후삼국 통일후의 어려움은



이때, 신라 경순왕의 형복을 끝까지 망다하면 태자는 뜻을 이루지 못하자



금강산으로 들어가 다시는 속세에 나가지 않겠다고 머리를 자르고



삼베조각을 걸치고 나무껍질과 풀뿌리로 연명하다가 서성을 떠나니



세상사람들은 그를 '마의태자'라 일컫고



머리를 자른 고개를 '단발령'이라 부르게 되었어



금강산 비로봉에 적고 호랑이 무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왕타자의 무덤이다



그런데 통일 후 고구려의 계승여념을 토대로 서경(西京)을 설치하고



거란족이 멸망한 년해(926)유민을 적극 포섭하여 우대하는등



고구려의 옛땅을 찾기 위해 북진정책을 펼치면서

옛 땅 회 복



북방영토 확장에 노력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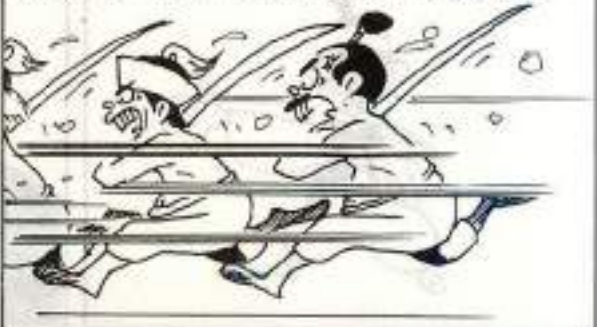
점식 비위 등 북방에는 거란과 여진족이 물결보게 성장하고 있었어



떨어 강해진 거란(오)과 여진(금)은 고려를 수시로 침공하고...



그 뒤를 이어 몽고, 원나라, 조선, 명나라, 왜구와 침입으로 고려 500년 역사는 전란사(戰亂史)로 점철되게 되.



우리 고성도 이 전란을 피해 갈 수 없었어



1217년을 전후하여 거란군의 일부는 청원→춘천→원주로 침입하였으나 징취려정군에게 패하자



패적을 거제 강릉으로 침입을 시도하다 명주 모노원에서 고려군의 공격을 받고



양양으로 퇴각하나 양양을먼저 금군의 거센 평원군



간성→고성→통천을 거쳐 어전의 땅으로 퇴각하게 되



어때 우리 고성주민들도 퇴각하는 거란군을 맞아 일대 평원을 적철어



북해의 피지배층이었던 말갈족의 후손인 어전은 만주와 평경도 지방에 살면서



경원도 지방에 자주 침입을 자행(恣行)해대니



뛰어는 때를 지어 동해안일대 각지에서 해적질
을 일삼았어



이러 고려는 1041년 판가현성(성북리)을 쌓아
해안방어를 강화하였고



이때에 여러 성들과 봉화대들을 새로 쌓거나
고쳐 더 해적(동여진)들을 대비 하였어



이 해적들을 '도여'라 불렀는데 1048~1050년 사이
에 파전현(동진 동성리) 임도현(고성 영성리)



윤양현(윤천리), 영성현(성곽리)등지에 침입하여
살인, 약탈 만행을 감행하자



육군과 수군은 격전을 벌여 적선 11척을 격파수
고 많은 적병의 목을 베는 성과를 올렸어



1049년 윤양중신 정종군외 대정영 유근등 11명의
군사들은 전성수(의현)까지 침입한 적들을 물리쳤
어



고려군과 백성들이 합심하여 여진 침략자들을
물리치니 그후 도고의 침입은 현저히 약화되



후, 몽고군은 동해안 지역에 익숙한 여동(東女兵)을 끌어 들여 어지러운 공격하는데 이용하는데



1249. 9. 20 동여진군이 간성·고성에 침입하자 박전부가 별조군을 만들어서 싸 부수고



1259 동진의 수군(舟師)이 고성현의 송도를 포위하고 전멸을 불태우면서 공격해 오자



고성주면들은 여 침입자들에게 타격을 주고 우리고 점을 굳건히 지켜왔어



몽고군은 1231부터 고려에 7차례 걸쳐 침공해 오는데 5차 침공시 몽고의 동군은



영변→통천→고성→간성→영양→경흥일대를 침입하여 약탈을 일삼았어



이때 고성주민의 피해는 엄청 컸을 것이고



화남보(還鄉女), 수라(왕의 전지), 죽두리, 만지끈지는 몽고와 관계되는 땅과 풍습이야



원(元)나라는 합단족이 고려의 동북면으로 침입하니
조정은서는 판가현에 중군관로 경문을 주둔토록 하였고



그 외 공전적과 외구의 침입



외구는 그후로부터 서서히 출몰하던 중정
2년(1350)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벌하기 시작했
어



1382-1383 회양, 진해, 삼국, 고성, 동산(일명)
대에 침략하여 노략질을 일삼자



관군과 백성들은 집을 작쳐 외구를 두려리는
덕에 일제히 일제었으며



성을 새로이 쌓고 보수하는등 국력을 강화하여,
이 시기 새로이 쌓은 성이 금강산의 '평군성'이고



고성군 남대리 '독버루(용천)'의 판 이종인 '외
문전'(여남들이 빠져죽은 벼랑)과



운정리 '되넝이 고개'·백적봉의 생토를 전승은 외
구와 관련되어 지어진 지명과 전설이며



당시 우리 선명들이 옛적과 다름 하였던 산악리 산성터에
날 1984. 9월에 석문 표식어 그때를 적게나마 설명해 주고
있어



고성 산악리 산성

여기는 옛날 이 고장을 지키려는 성민들의
호국의 열이 솟은 산성의 옛 터기다
처음 이곳에 성을 쌓은 시대와 성에 대한
내력은 전하는 바 없이 추측하지 않으나
고려시대 전반기에 동해군과 개주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쌓은 산성이라 한다
1033년(고려덕종) 이 고장에 침입한 왜구의
무리와 1219(고려고종)에 침입한 몽골(원)의
무리를 이 산성에서 막아 싸우 곳이라 장항하
세월이 가고 말년은 허물어 있으나 향토를 수호
하려는 이 고장 선민들의 열이 솟은 호국유적으
로 이를 보호하고자 표식을 세운다

1984. 9

고성 관공

그 당시 고성주민들이 겪었던 고초가 얼마나
심하였는지는 대령산영에서 찾아 볼 수 있어



'대령(埋喪)'이란 산곡수(山谷水)와 배냇물이 만나
는 지점이 얼마나를 묻고 정령을 만드는 것으로



어는 내세 미혹정도에 태어날 것을 염원하여
머



계속되는 정령에서 오는 민중들의 불안과 고통을 이
대령을 통하여 지우려 하였다



지금껏 배경된 대령비(碑)는 성일포·점주·
사천·염터드·해대대령비가 있는데



성일포 단석담 위에 1309년 갑오 훈무사 김철호가
세운 대령비는 그 비석을 세웠던 흔적만이 남아있어



유라시아를 삼식간에 정확한 무적 몽고군



그 몽고군에게 110여년간 세계사에서도 그 무례를 청
아 볼 수 없는 참전을 벌였던 우리 민족은



전란의 와중에서도 고려말, 조선 ↔ 경주까지
영토를 확장 했었고



팔민대장경, 고려철자, 적지심경 등 종교, 과학기
술·예술의 발달을 가져오게 되



우리지방에서도 유목지(櫛木紙:버드나무가지를 주원
료로 만든 종이)등 각종 종이 생산이 유명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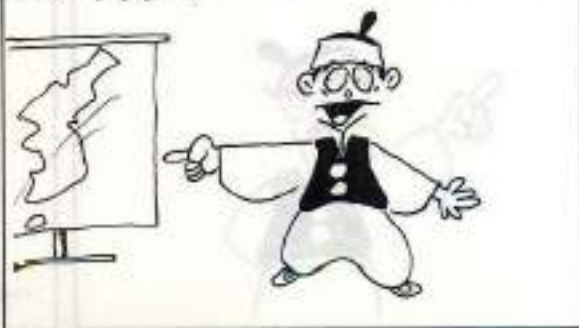
이는 금강산 각 정에서 여러 풍경들의 목판인
쇄, 곧 출판문화의 발전에 기여 하게 되었어



간성과 고성여 최초의통합



고려는 건국초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행정
가편을 추진함 따.



우리 고성도 수성군(守城郡)은 간성현(縣)으로, 고성군은 고성현으로 용호가 변경되었고, 이어 간성이 縣으로 승격되면서 고성현을 겸임



이는 행정구역상의 변화를 의미함이 아니고, 고성의 수령이 고성의 통치권을 겸임하는 것으로



간성군은 영선군을 영내로 확보하고



충선현(고구려)→충선현(신라)→영선현(고려)→선략의 앞대

고성현은 화가현과 양정현을 영내로 확보하려고



계수현(고구려)→화가현(신라) : 은정리 일대
백이현(신라)→양정현 : 송현리 일대

고성과 간성의 통합피해는 영역의 개편에 의해 지방사회의 세력관계를 그대로 수용하였던 것으로



이는 주민의 편리성 보다 중앙정부의 지방통제에 편리함을 하였던 것이여



수성(守城)이 어떤 연유로 간성(杆城)으로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간성을 桿城, 水城으로도 쓰거나 부르기도 하였어



'桿城'을 요자들은 '한성'이라고도 읽으나 '桿'은 '杆'의 속자(俗字)이므로 '간'으로 읽을여 옳다고 생각해

杆
桿



또 고성의 별호로는 금강산에 기암괴석이 많아서인지 '豐巖(豊巖)'이라 하였어



간성과 고성은 예나 지금이나 군사성으로 중요한 곳이었나봐



우리 고성은 5도 양계 행정관제시 동계어 속하면서 지방정권 연결사(接察使)대신 병마사(兵馬使)가 디스렸고



주현보다 보경된 주전군으로 구성되어 있어



	별장	고위	대정	조군	비군	우군	영세군
고성	1명	4명	9명	2대	1대	3대	2대
간성	1명	5명	10명	4대	4대	2대	1대

고성이 간성보다 북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간성이 주전군이 많았는지는 알 수 없고



간성과 고성은 고려 마지막 공양왕(1389)때에 와서 다시 나뉘지게 되는데



이 공양왕이 간성과 맺는 기구한 인연은.....?



원·명고쳐기 삼성동관부 위치에 명나라가 청령위를 설치하고자 고려에 통보함에 따라



우월과 점령은 이성계로 하여금 요동을 정벌토록 하나



이성계는 압록강 위화도에서 4불가존을 주장하던 조공을 끊어



적영장군을 적성하고 우월을 귀양 보내고 청령을 점령시켜



더어 광영위를 주위시켜더니 1392년 왕을 내물고 조선을 세우게 되



나라 이름을 '위백'이라 할까요?

'조선'이라 할까요?

조선이 좋다



이성계는 광영위를 원주 부근에 순위설로 귀양 보낸다



(1392. 8. 기유) 조선 금수리 고성성에서 아래에 있는 수타사로 다시 옮기도록 함



이때 공양왕의 뒤를 따르는 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이 함부열(咸傅說)이다



죽계(竹溪) 함부열은 공양왕때 여부상서 홍문관 학사를 지낸 사람으로



서술이 시표런 그 당시 분사이군(不事二君)의 중정으로 군사들의 감시가 엄밀한 경계속에서도



경성까지 따라와 공양왕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명국의 한을 달래며 짙은 나날을 보내던 공양왕은 다시 성취군 근대면 궁촌리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살해되어 죽게되니, 지금도 공양왕을 살해한 그 고개를 살해자지라 부르고 궁궐을 지었다하여 궁마을(宮村)이라 부르고 있어



왕이 살해되기 600년이 지난 지금 공양왕 무덤 성(陵)은 경기도 고양성, 성직 궁촌리성, 경성 고성산성으로 나뉘어 지는데



성취성은 공양왕이 살해된 후 그 곳이 묻혔다는 것이고



경기도 고양성은 사해된 후 신선의 몸은 성터에
묵은 조선조성에서 확인후 고양 원당에.....



관성성은 원이 성해되자 함부영이 밤에 물과
신을 거두어 관성으로 옮겨와 고성성에 묻었다는
이야기이고



함부영의 후손들은 관성무덤성을 조선시대 내내
금기시하여 오다 오늘날에서야 그 이야기를 전하며



1983년 함씨의 후손들이 함씨 모종 복원해원중
공영원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견하였다고 전해
지고 있어



함씨영 후손들은 본을 양구(楊口)으로 삼고 지금도
관성 금수리, 경동리, 고동리등에 살고 있어



‘중정의 고장’ 영월에
단종왕의 신신을 거둔 영종도가 있다 하면



우리 고성에는 함부영어가 있다.



500년 고려역사는 이렇게 막을 내리고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는

내가
왕이로소이다.



나는 개혁의 왕
눈물의 왕
참혹의 왕....
고로 나는 조선의
왕이로 소이다.



1392. 7. 17 개성 수창궁에서
왕위즉위식을 갖고



1394. 11. 29 한양으로 수도를 옮겨



이어 1395. 6. 13 강릉도와 교주도를
합하여 강원도라 하였어



우리 고성은 고려 말과 마찬가지로
간성군과 고성현으로 분리 되었고



고성현은 세종대에 와서
고성군으로 승격하게 되



조선에 와서는 고성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세종실록지리지』에서
고성여아기를 찾아보면



인구



	인구	가구수
계	1,572	753
간성	313	227
연산	254	105
고성	871	375
안창	134	46

군(軍)



	고성	간성
계	107	223
사위군	37	72
선군	70	140
전군		11

성씨

	간성	연산	고성	기타
토성 土姓	宋, 李	羅	柳, 朴, 孟	안창 (임성) 李, 高 관가씨원 根, 朴, 皇甫
망성 亡姓	曹, 張, 文	羅, 皇甫	俞, 吳	
속성 續姓	金, 李, 咸, 尹, 南, 全, 朴, 鄭	金, 全, 孫, 朴, 林	羅, 吳, 崔, 鄭, 金	
향리	도두	全, 孫, 朴, 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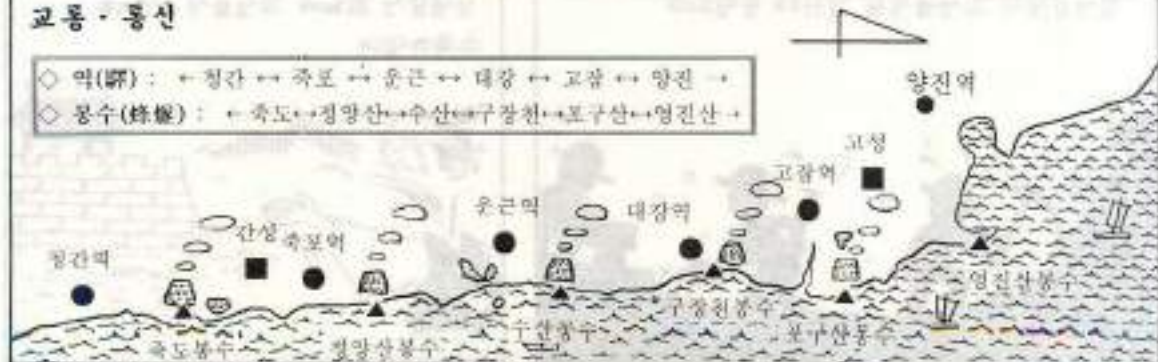
토산물



간성	오곡, 찰나무, 쌀, 배, 밤, 낙나무, 황금, 꿀, 밀, 도끼, 서우치, 오배자, 호도, 지초, 느타리, 참, 여우가죽, 살쾨리가죽, 노루가죽, 어피, 돼지털, 뜰어, 대구, 송어, 상어, 연어, 전복, 홍합, 진북염대기, 대역, 조피나무열매, 가는황대, 황대, 송이
고성	오곡, 찰나무, 쌀, 배, 참, 낙나무, 황금, 꿀, 밀, 서우치, 오배자, 지초, 느타리, 석어, 미다나불뿌리, 호도, 배, 여우가죽, 살쾨리가죽, 노루가죽, 수달피, 참, 돼지털, 뜰어, 대구, 뜰어, 연어, 상어, 송어, 홍합, 전복, 대역, 백식염, 다시마, 모정어배

교통·통신

- ◇ 역(驛) : ← 청간 ↔ 죽로 ↔ 운근 ↔ 대강 ↔ 고장 ↔ 양진 →
 ◇ 봉수(烽臺) : ← 죽도 ↔ 정양산 ↔ 수산 ↔ 구장천 ↔ 포구산 ↔ 영진산 →



읍성(邑城)



간성	간성읍성	석성 563.3m 토성 156.3m
	성산석성	2073m
고성	관성산성	476.9m 장고 13칸

토지

간성	간성이 1,302결(논이 1/2이 넘는다)
고성	간성이 1,316결(논은 겨우 370결이다)



간성군의 관할은
2군(고성, 동천군)
1현(출곡현)



문종대 1451년에는 홍천·횡성군영 1014명



춘천·영구 안제군인 1591명



간성읍성과 고성읍성을 쌓는데 동원되어



간성읍성 821m와 고성읍성 670m를
수축하였어



단종으로부터 의롭지 못한 행위로
명위를 찬탈한 세조



지방군사 진영개편에 따라 고성에
거진(巨鎭)을 설치하더니



2년 뒤인 1457년에 거진을 간성으로 옮겨와
고성, 동천, 함곡을 관할하게 해



거진(巨鎭) : 절제사(정3품)가 있는 진영

조선은 4군6진(세종)을 개척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북방으로 하삼도사람들을 이주시키는데



세조대에 와서는 고성, 간성으로 옮겨와
사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었어



세조는 말년에 문종병을 얻어 고생하다—



1466. 3 신숙주, 한명회, 황수신 등 대소신을 대동하고 관동순례차 금강산으로 떠나



금강산에 도착한 세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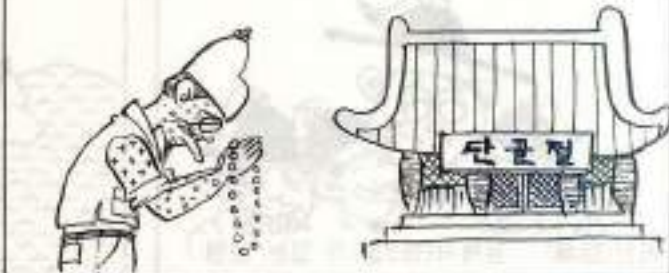
장안사, 청암사, 표훈사, 유점사를 두루 살펴보고



각 절에 쌀 300석과 참살 10석 등을
시주하도록 하였어



유점사는 1453년 화재시 중건비를 마련해 주었던
곳이며 왕의 원당으로 지정(1456)하였던 절이기도 해



세조는 1466. 3. 25 고성탕평의 행궁(行宮)에
거동 후



보름정도를 고성에서 보내



어때 고성에서 별시가 치러져 진지지(陳趾止) 등 13명이 급제하는 대경사가 벌어져



여조첨판 김희행이 세조에게
금강서기승을 지어 물린 것도 이때야



세조 일행은 (윤) 3월 동해의 산에게 제를 올리고
명파(3월), 도성(3월)을 거쳐 오대산으로 떠나



건봉사사적지에는 세조가 건봉사에 행차하여
원당으로 점하고



'어실각을 짓도록 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여중 1년(1469) '남미의 목' 사건으로 주살된

시 한번 잘못 쓰고.....
억울하다.....



남미, 강순 등의 토지 110결과 영문 4개소
노비 30명 사방 40리 산림이 유점사에 주어져



성종대 고성사람 무관 왕성지는



어머니 나이 89세가 되도록 봉양을 다함에
그 효행이 조정에 알려져 벼슬을 내리도록 하였어



1471 강성사랑 단항의 105세 장수를
축하하며 임금은 쌀을 내려 주었고



1473 '대시대의 난(1467-5) 평정시 간성항리
최연수의 1등 공로가 인정되어
평생 면역을 받게 되



1489 2 간성은 산불로 향교와 대가 200여 호가
불에 타는 큰 난리를 겪었어



1490년경 청백리로 유명한 최자점이라는
고성군수가 부임해 왔는데



곧직한 행동으로 강원감사의 미움을 사
파면 당해



집으로 돌아 온 자점은 여섯집을 정리하다
부엌칼 하나가 발견되자



고성오장에게 편지와 함께 칼을 돌려보내
정도로 정직한 사람이었어



그의 자손들은 강호 부근에서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어



밭도 많고 탈도 많았던 중종대



1507 9 전산군 이과와 모반사건에 연루된 전성군이 간성으로 유배되어 와



같은 해 10 15 간성에서 사사(賜死)되—



전성군의 억울한 죽음 때문일까? 중종대 내내 고성은 각종 재해에 시달려



지진

1515. 2
1520. 12
1521. 9
1521. 12
1531. 8



눈

1517. 4
1520. 4
1524. 4
1526. 8
1527. 4
1530. 9
1539. 4



우박

1515. 4
1526. 4
1527. 4
1527. 5
1529. 5
1530. 9



전염병

1526. 3
1526. 12



충해 (蟲害)

1519. 6.
1531. 5.



풍해. 비바람



가뭄. 흉년 등.....



우리 선조들 다 죽겠다. 다 죽겠다..



어해의 기록을 보면 죽왕면 오중산이 기우제 (祈雨祭)에 요혈이 있는 장소로 적혀 있어



1519. 5. 10 간성에서는 다섯 달 된 기형 망아지가 태어나 화제가 되었고



1531. 북방의 귀족들이 간성, 고성에 침입하여 고기잡이로 생계를 이어가다



그 수가 늘어나자 경기도 마천으로 옮겨갔어



중종25(1530)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고성 편에는



성씨

고성	柳·朴·孟(고성), 俞, 吳, 劉, 岳, 崔, 鄭, 金 李, 高, 皇甫, 朴
간성	宋·柳·李·張·文(간성) 金, 李, 咸, 尹, 南, 金, 全, 朴, 鄭 崔·麻·皇甫(영산) 金, 全, 孫, 朴, 林

간성 남쪽 18리와 고성 남쪽 24리에 위치한
모래밭



'명사(鳴砂)'를 소개하고 있어.



모래 색이 눈길에 희고 사람과 멀어 지날 때면
쉴소리가 난다고 해



현 위치로는 공현전 앞바다 모래밭과 갈매 부
근의 송도 모래밭이 바로 그곳이야



신증동국여지승람 고성 편은 부록에 간략히 기술
해 두었으니 읽어보기 바라고



명종대로 넘어가 보지



간성문수 신잠(1550-1553)은 태민현감, 상주목사를 역임하였는데



태민, 간성, 상주에서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이 그를 부모처럼 받들었어



신잠을 사랑하는 모임

신잠선생 소상과 성정비는 정읍시 태민면에 지금도 남아있고



신잠(신숙주의 증손임)은 시서화에도 능하였으며, 저서로는 '영천잡과' 그림으로는 '설중기려도' 등이 남아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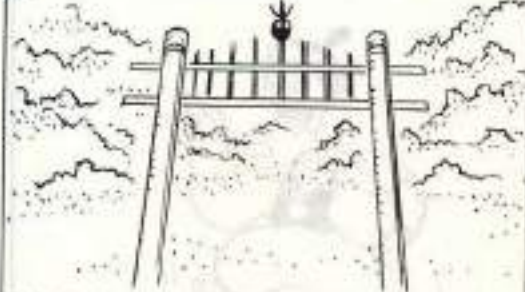
1555 호자 간성교생 평필현은 아버지가 사망하자 3년간 죽만 먹으면서 시묘를 살았고



어머니가 약질을 얻게 되지 단지하여 약에 타 먹어 병을 낫게 하니



나라에서는 정문(荊門)하고 복호하도록 하였어



복호(復戶): 요역과 전세 이외의 잡무금 면제

1557. 4 대포에서 표류된 판옥선이 간성앞바다에서 발견되었는데



탑승자 50명중 40명은 굶어 죽었고 나머지
사람은 아사직전에 구조되었어



김한걸(金漢傑)

개성사람

서화담(서경덕)의 제자



명종14(1559) 고성군수 김한걸은 고성군의 떠돌을
임금에게 글로 올려



그의 성소본 내용을 살펴보면



고성의 눈밭은 보태름에 녹음이어서 눈피와
방벼가 자라지 못합니다.



고성뜨락들은 들쭉리를 매어먹고 나무껍질을 벗겨
서 식량으로 대신합니다.



남자는 온전한 바지가 없고 여자는 온전
한 치마가 없으며



종교 굶주림에 극제 된 백성에게 잔학한 정치는 육한
지병에 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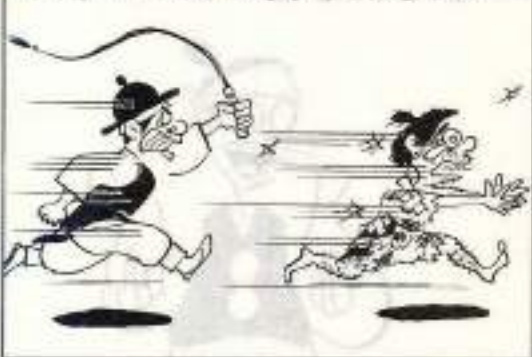
길거리에서 발랑하고 걷는 행인을 보면 '고압력 현'이라고 부릅니다.



고압의 관리능 진압하여 감사의 표시로 이자 면제에 대해 원수복 가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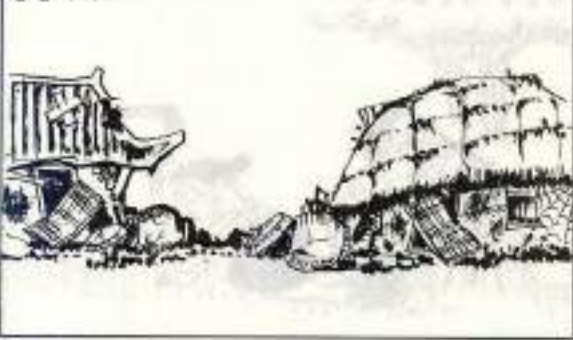
책자를 마구 때려 고혈을 굶어냈습니다.



원래 가구 수는 371호 이었는데 액리, 노비, 도망한 가구를 제외하면 125호 뿐입니다.



이는 폐정과 흉년과 요역이 생업을 벼앗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강산 12개 사찰에서 극악을 사막은 자는 노수사에 소속된 노비뿐이며



살린 자는 죽이고 밭을 갈는 자는 백성입니다.



공물(貢物)도 잔잔히 남아있는 백성이 10가구가 감당하던 것을 1가구가 부담하고



선상공포도 노비들이 빈약하고 곤궁함이 더욱 심하여 1년에 2필을 공납하기도 어려운데



8년 동안 공납을 못하여 XX(刑)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이도 그간 죽거나 거저 얻어 떠돌아다니는 자가 반이 넘어



남아 있는 자가 10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모든 가구는 군에 속해있고 몸은 포에 속해 있어



온갖 부역이 한 몸에 모이므로 부담이 커 도망자가 많습니다.



꽃집은 고갈되고 백성의 근심과 희망이 또한 갈은데



공부, 요역, 진상은 옛과 같아 선상노는 도망가고



백성들도 쟁치 없이 퍼 돌아다니니



모든 인가가 역우와 토끼집으로 변해 갑니다.



이름 어찌 알아서 구경 만하고 구원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이것이 산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삼 못 이룩되 한숨쉬는 까닭입니다.
통곡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소문을 통하여 김한길군수와 백성 사랑하는 마음과



어 땅의 선조들이 얼마나 조들라고 시달림을 받았는지를 엿볼 수 있어



천하제일 금강산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선조들은 형성 기년하고 소외당했으며



여들에게 금강산은 하나의 바위덩어리로만 비쳐졌을 것이야



세인들이 금강산 문온하며 무리를 즐기며



끼니 걱정을 하며 산으로 들로 헤매야 했고



고관대작들이 금강산을 찾게되면



찾는 수많은 삶과 피를 짜내야 했어



고성당성에 묵묵 온 사람을 기록에서 찾아보아도



이리 많았는데—



나 이조판서 홍길동인데...
바다가 잘 보이는 큰 방으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나 관찰사 임거정인데...
우리 식구 8명이 금강산
으로 가니... 잘 좀 부탁하네.....

예, 예, 확실히 모시겠습니다.

나 의금부 최고봉인데...
심상한 죄 좀 부탁하고.....

거기 오징어 많이 난다며....
돈은 나중에 부쳐 줄 터이니
덕배로 좀 부쳐주게

돈은 필요 없습니다.
맛있게만 드세요

금강산을 찾은 사람의 수는 헤아릴 수가 없었을 거야



여러 연유로 '금강산도 석후정'이라는 속담이 이 땅에서 자연히 흘러나오게 된 거야



선조7 (1574) 간성→원제간 고개인 선유령을 개동시킨 간성군수 왕린(黃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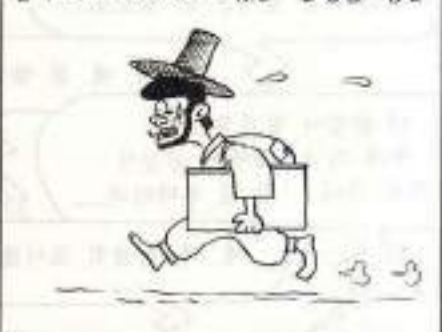
그의 아들 황집중은 조선중기의 유명한 화가였어



황집중(포도)은 미정(대나무), 어룡동(대화)과 함께 삼절로 일컬어지고



황집중의 나이 44세에 진사시현을 임격하고 아버지가 있는 간성을 방문



간성 명월루(明月樓) 편액에 글씨를 썼으나



아쉽게도 누각과 편액은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아



그의 작품으로 전해오는 것은 국립박물관에 소장된 '목포도도' 1점뿐이다



해상이 높다하되 하늘 아래 뛰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마는
사람이 해 아니 오르고 댜만 놀다 하더라



이 시조와 주인공 양사언은 안평대군, 김구, 안오와 함께 조선전기 4대 명필로



특히, 큰 글씨를 아주 잘 썼어
금강산 만폭동의 '蓬萊楓岳元化洞天'과



청간정 해본 석벽의 '淸澗亭'이 그의 글씨이며



매사정송의 절송경개인 김호에는 양사언이 살던 비래 정자가 남아 있고



또 그의 형 양사준은 강성군수(1563-1564)를 지내면서 청간성시를 남겼어

鷗鷺秋風無伴侶
衆穠今日影成雙
行台物色皆詩債
玉唾晴紅背客窗



망편대제학을 지내고 도선서원을 창설하여 후진 양성과 학문연구에 힘썼던 퇴계 이황 선생이



강성에서 잠시 살았다고 전해 오고 있어



강호애 병이 깊퍼
독님의 누엇더니
관동팔백년에
방면을 맞디시니
어와 영혼이아
가디록 망극중독
연휴분 드리두라
경외남편 부라보며
.....

관 동 별 곡.....



정철 [鄭澈]

호 : 송강(松江)

주요저서 :

《관동별곡(關東別曲)》

《사미인곡(思美人曲)》



1580(선조13) 송강의 나에 45세 때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내·외·해금강과 관동팔경 등의



절승을 두루 유람한 후 그 여정의 아름다운 자연경치와 고사, 풍속 및



자신의 소감을 읊은 노래로 맹꽁이하고 화려한
느낌을 주며



월달하고 낭만적인 서정이 넘쳐 흘러



크게 4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1단은 강원도관찰사로 제수된 김경과 임지로 부임하는
모습을 엮은 서곡이고



제2단은 내금강의 절경을 읊은 노래이며



제3단은 외·해금강과 관동팔경의 절경을 읊은 노
래이며



제4단은 작자의 풍류를 꿈속에서 신선이 되어
달빛 아래 노니는 데 미유한 결구야



여기서는 고성에 관계된 제2, 3단을 보도록 해



관동별곡(關東別曲)

전략

개심대에 다시 올라 증향성을 바라보며
만 이런 풍을 똑똑히 헤아려 보니,
봉마다 뿔뿔히 있고, 골마다 시련 기운,
맑거든 깨끗하지 말거나,
깨끗하거든 맑지나 말 것이지,
맑고 깨끗한 저 산봉우리의 배어남이여!
저 맑고 깨끗한 기운을 흠뻑 내어
뛰어난 인재를 만들고 싶구나.
샘길 모양도 각양각색 다알도 하구나.
천지가 생겨날 때에 지질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제 와서 보니 모두가 뜻이 있네

안개어진 뜻하야 점담지도 점담구나!
금강산의 최고봉인 비로봉에 올라 본 사람이 누구이신가?
동산과 태산의 어느 것이 비로봉보다 높던가?
노나라가 좁은 줄도 옥위는 모르거든,
하물며 넓거나 넓은 천하를
공자는 어찌하여 작다고 했는가?
아! 공자와 같은 그 높고 넓은 경지를
어찌하면 알 수 있었는가?
모르지 못하는데 내려감이 무엇이 괴이할까?

원통굴의 좁은 길로 사자문을 찾아가니,
그 앞의 넓은 바위가 화룡소가 되었구나.
마치 천 년 묵은 좁은 웅이 금이금이 서려 있는 것같이
밤낮으로 물을 흘러 내어 넓은 바다에 이었으니,
바라과 구름을 언제 막아 졸졸한 비를 내리려느냐?
그늘진 남파리지에 시든 풀을 다 살려내려무나.

마하면, 표절상, 안문재를 넘어 내려가
찍은 외나무다리를 건너 불참대에 오르니
천 길이나 되는 절벽을 금줄에 세워 두고,
은하수 큰 굽이를 바다마디 잘라내어
실처럼 끌어서 여처럼 걸어 놓았으니,



산수도경에는 열 두 굵이라 하였으나,
내가 보기에는 그보다 더 되어 보인다.
만일, 이젠이 지금 있어서 다시 의논하게 되면,
역산 폭포가 여기보다 낫다는 말은 못 할 것이다.

내금강 산중의 정지만 때양 보겠는가?
이제는 동해로 가자구나.
남여를 타고 흰흰히 걸어서 산명루에 오르니,
눈부시게 반짝이는 시냇물과 여러 소리로 우짙는 산새는
나와의 이별을 원망하는 듯하고,
깃발을 휘날리며 오색 거족이 넘나드는 듯하며,
복과 나팔을 쉼어 부니 바닷구름이 다 걷히는 듯하다.
모랫길에 익숙한 말이 취한 신선을 비스듬히 태우고
해변의 배담화 관 꽃밭으로 들어가니,
백구야 날지 마라.
내가 네 벗인 글 어찌 아느냐?



금란굴 돌아돌아 총석정에 올라가니,
목왕 상대가 거처하던 백옥목의
기둥이 내 개만 서 있는 듯하구나.
옛날 중국의 명장인 공수가 만든 작품인가?
조화를 부리는 귀신의 도끼로 다듬었는가?
구래여, 육면으로 된 돌기들은 무엇을 본 땀인가?



고성을 저 만큼 두고 삼일포를 찾아가니,
그 남쪽 부귀리 벼랑에 '영랑도 남석행'이라고
쓴 글은 글씨가 똑뿔이 남아 있으나,
이 글을 쓴 사선은 어디 갔는가?
여기서 사흘 동안 머무른 뒤에 어디 가서 또 머무렀던고?
선유담, 영랑호 저기나 가 있는가?
청간정, 안경대를 비롯하여 몇 군데서 앉아 놀았던가?

후략.....

.....

1592. 4. 14 명나라를 침공한 티머니 길을 비켜 달란'는 명복을 내세우며



수륙양군 17만 명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한 일본은



전 국토를 7년 만에 보루 천화에 휩싸이게 하였어



부산에 상륙한지 18일만에 한강에 이르고 이틀 후인 5.4 한양을 점령하게 되



모리요시나리(毛利吉成)의 왜군은 서울→동두천→설악→평강→강화→회양→안변에 이르렀다가



동해안을 따라 통천→고성→간성→양양으로 남하하여 강릉을 함락시켜



이때 고성지명의 피해도 엄청 컸으며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어



무관 손세경(孫世敬)은 비밀문서를 전달하기 위한 전령업무 수행 중 왜적에게 체포되어



모진 고문 속에서도 끝까지 비밀을 지키는 기회를 틈타 도망하였으나, 결국 잡혀 채신 당하였고



간성 해생리 정석개(鄭石介)는 교생 정희명의 딸로 왜군이 침입하여 방화, 약탈, 살상을 일삼자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으로 피신하였으나, 왜군이 산 속까지 수색하여 행패를 부렸어



석개는 마을사람들과 돌로 반항하나 역부족으로 체포되자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반항하므로 왜놈들은 석개의 유방을 도려내고 난처해 숙였어.



간성향교에서는 침입한 왜놈들이 기물을 부수고 불태우자 김자백의 아들 자연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뛰어 들어가 성원들의 위패를 모으려다 왜놈들에게 잡혀 죽음을 당해



왜군의 일부 무리는 금강산 사찰에 금은보화
기 많다는 소문을 듣고



유정사를 비롯한 각 사찰에 침입하여 방화, 약탈을
일삼았어



선계사가 이때 왜군에 의해 불타버려...



금강산에 있던 시명대사는 직접 적장을 만나 양부르
인명피해를 내지 말 것을 강경히 요구하고



스승인 서산대사의 격문을 받고 바람 달의
등불 선세가 된 나라를 구하고자



건봉사에서 금강산 주변 승려 700여 명을 모집하
여 의승군부대를 조직



나쁜 놈을 없애고 평안도 해방시켜



1593. 1 평양성 탈환전투가 시작되자 칠성문쪽으
로 공격하여 성탈환에 혁혁한 전공을 세웠고



1593. 3 삼각산 및 우관동 전투에서도 큰 전공을 세웠어



그가 지휘한 외승병부대는 팔공산성, 용기산성 등 6개 산성을 수축하였으며



군량미 4,000여 석을 비축, 군기제작 등을 통하여 전쟁승리에 이바지하자



선조는 그의 공로를 인정하여 가선대부승주부사의 벼슬을 내려



1604. 8 강화사신의 자력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8개월 간 노력 끝에 성공적인 외교성과를 거두고



전란 때 장해간 3,000여 명의 우리 동포를 데리고 귀국해



이때, 왜군들이 통도사와 월정사에서 약탈해 갔던 석가모니 진신치아사리를 찾아와



건륭시에 봉안하였어.



전설치아사리는 전세계에 총 15과가 있는데
그중 김봉사에 8과, 스리랑카에 3과가 있어



금강산 천봉사는 사명대사가 의승병을 일으켜



백척간두에 선 국문을 다시 일으킨 국란국
복의 유적지이지



민족의 역사와 호국정신을 담고 있는 절이기도 해



인진왜란을 전후로 업친 데 겹친 격
으로 각종 재해도 심하여



1589. 7. 역질
1596. 5월부터 한달간 오리고 비
1601. 3월부터 5월까지 가뭄
1603. 5. 가뭄
1604. 6. 홍수
1605. 7. 8월 대풍수



백성들의 생활은 도탄에 빠지는데



간성군수 이유직(1605~06)은 형장이 가혹하고



김준겸(1606~07)는 배움을 들보지 않고 재물만
긏어 모으므로 조정에서는 그들을 파직시키게 되



또, 전임군수 최령(1603~05)은 부임후 관청사
무는 생각지 않고 재우는 열여덟 전념하였어

내가 너희 고을을 빌어
온 것은 나의 책을 완성
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최령은 재임시 사무에는 무관심하고 글쓰
는 일에만 전념하였지만



재령군수로 재임시에는 기민구제에 큰 공을 세우
기도 하였고



율곡 이이의 문인이며 송도심정(차천문(詩), 환호(詩))로
영대 최고의 문장가이자 외교문서 작성의 1인자이기도 해



만년에는 간성에 와서 살았고, 그의 자
손들도 대대로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어



1602. 5 간성 사망에 누런안개가 짙었다는 기
록으로 보아 이때도 황사가 있었던 것 같아



1609. 8. 25 간성, 양양, 강릉 등지에서 미확인
비행물체(UFO)가 목격되어 화제가 되었고



연조 3년(1625) 연성군 이공(李拱)이 여관의 난 때 적당(賊黨)에 가담한 죄로 간성에 유배되어 와



1629. 간성에서 노비가 주인을 살해한 사건이 일어나자 그 노비를 주참하고



간성군을 현으로 강등시켰다가 10년 후 다시 군으로 승격시켜



이 식(李植)

본관 : 덕수

호 : 백당(百堂)

별칭 : 자 여고(汝高)

시호 문경(文靖)

주요저서 : 백당집

.조학자훈증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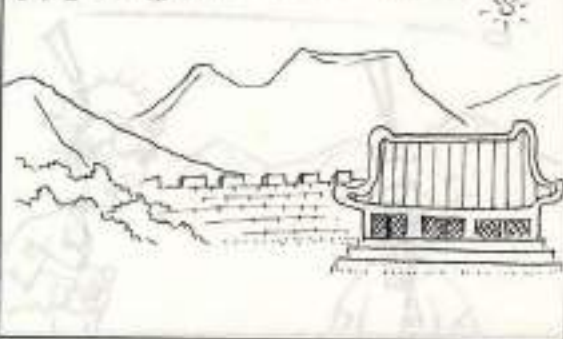
간성현감 이식(1631~32)은 광해군 2(1610)년에 문과에 급제 7년 뒤 선전관이 되었으나



폐모론(廢母論)이 일어나자 배신을 버리고 낙향, 1623년 인조반정 후 여조화랑이 되



몽문관 부제학으로 있을 때 외직을 자청하여 간성현감으로 왔다가



일기도 채우지 못하고 제지리로 불러 돌아가게 되었어



인조 20(1642)년 김상헌 등과 함께 척화를 주장하여 청으로 잡혀갔다가 오기도 하였던 분이데



간성현감을 지낸 이듬해인 1633년 간성에서 폭격한 서금 등의 폐단을 임금에게 상소하여 시정하게 하였고



간성(杆城)의 선천, 조세, 물산, 교통, 사묘, 민물 등에 대한 책을 저술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수성지(水城志)야



당시 조선 300여 개의 군(郡)에서 군지(郡誌)가 있었던 곳은 10개 군에 불과해



우리는 이 수성지로 인하여 옛 선인들의 숨결과 흔적을 살펴 볼 수 있으니



우리 고장의 크나 큰 보물여자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어



그후 수성지(水城志)는 간성군수 김광우(1745-48), 고영희(1884) 등에 의하여



고영희 : 이원용과 함께 방곡내자 5역신 중의 한 명

교정, 청재, 부록, 실증, 잡기 등의 형식으로 증보가 되어 '간성군읍지'로 거듭 태어나게 된



그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남산(南山) : 군 남쪽 5리에 위치 (현, 간성 금수터 고성산)



마기라산(麻荪羅山) : 군 정서(正西) 30리에 있으며 산성의 전산, 최고봉인 향토봉은 큰 가뭄때 겨우새를 낚는다.



천후산(天吼山) : 군 남쪽 70리, 이 산에는 눈이 많고 바람이 스스로 불어오기 때문에 '천후(하늘이 부는 바람)'라 전해오고 있다.

※ 대동여지도에는 천후산이 현 읍신바위 위치에 표기되어 있고 올산은 현 청대산 위치에 표기되어 있으나, 그 이전의 기록인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수성지에는 미시령은 간성 남쪽 80리, 천후산은 간성 남쪽 70리로 각각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 천후산은 미시령의 안쪽 현 신선봉의 위치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광호(廣湖) : 군 남쪽 45리, 주위가 10여리, 수심이 깊어서 연이 잘 자라고 꽃이 가득히 핀다.



연꽃 사이로 배를 저어가면 하늘에는 비단구름이 뜨고 연꽃향기가 사람을 매혹시킨다.

